재가불자들, 禪 대중화 위한 수행정진 돌입

백양사, 11월 23~24일 '참사람 가행정진' 입재

1년간 매월 1회 1박2일 참선수행
'오직 화두 정진' 청규 철야정진
무공 스님 "마음 정돈하는 시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는 매월 한번씩 참사랑 가행정진을 진행하며 선 대중화에 앞장설 방침이다.

백양사가 서옹 스님의 '참사람 운동' 유지를 이어받아 8가지 '참사람 청규'를 제정하고 재가불자 수행정진의 문을 열었다.

제18교구 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23~24일 이틀간 경내 선불장(참사람교육관)에서 '불기 2568년 백양사 참사람 가행정진(加行精進)'을 진행했다. 가행정진은 선방에서 30년간 수행한 스님들의 경험과 방법을 재가불자들이 뒤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1년 동안 정진하는 수행이다. 이번 정진은 선(禪) 대중화 실현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백양사는 11월 23일 주지 무공 스님, 수좌 일수 스님, 백양사박물관장 동참 스님 등 참선 지도스님들이 모인 자리에 용상방을 설치하고 입재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한 재가불자 45명은 각자 소임을 정하고 정진에 돌입했다.

입재식에서 백양자 주지 무공 스님은 "가행정진은 통해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고 부처님 제자로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백양사에서 한 달에 한 번 개최하는 용맹정진을 통해 재가불자들이 세속에서 물든 마음을 정돈하고 청정하게 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은 "백양사는 많은 선승이 나온 사찰로, 서옹 스님의 참사람 수행정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수행정진이 운문암, 고불선원 등 출가자뿐만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자기 자신인 '참사람'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백양사박물관장 동참 스님은 "백양사는 고려시대부터 단일 문손이 끊이지 않고 수행가풍이 이어져 온 유일한 도량"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수행정진을 선택한 재가불자분들의 가행정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백양사는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일수 스님의 관심론 강의에 이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50분 정진, 10분 행선을 진행한다.

가행정진은 △오직 간화선 화두 정진만 한다 △묵언 좌선을 원칙으로 한다 △참선(參禪)은 오직 할 뿐이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깨치려고 하면 깨치지 못한다 △그 무엇이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간다 △삼매에 들면 삶이 바뀐다. 선정은 지혜로 된다 △오직 마음이 수행한다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고, 본래 청정한 진여본심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가행정진이다 등 8가지 청규로 운영된다.

가행정진의 입승 소임을 맡아 정진에 돌입하는 운봉 불자는 "재가불자로서 1400년 선맥의 고향 백양사에서 역대 스님들의 수행을 몸소 경험해보고자 참여했다"며 참여 계기를 밝혔다.

정기 가행정진을 1년간 참여한 재가불자들은 30회, 50회, 100회를 기준으로 안거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백양사는 향후 참가 재가불자를 100명까지 확대해 정기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 40돌 기념법회

11월 23일 충남대 영탑홀서
"대원회 다시 활성화시킬 것"



대원회는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재도약을 서원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가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재도약을 다짐했다.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회장 오영달)는 11월 23일 교내 영탑홀에서 '충남대 교수불자회 대원회 창립 4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원회의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침체됐던 대원회의 활성화를 서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순천 신행선원장 영명 스님, 공주 동혈사 주지 종성 스님, 부광사 주지 동화 스님, 봉국사 주지 심전 스님, 천장사 중현 스님, 오영달 대원회장을 비롯한 대원회 교수들과 지역 불자들이 함께했다.

심전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청법가 △입정 △법문 △찬불가 △발원문 △축원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영명 스님은 법문에서 "자비행 속에 깨달음의 열매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혜만 있고 자비행이 없다면 쓸모없는 '마른 지혜'가 된다. 자비와 지혜를 두루 갖춘 보살행을 실천하는 대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오영달 회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 대원회가 오늘 40주년 기념법회를 통해 재도약하길 서원한다"며 "대원회가 충남대 교육공동체을 위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의 등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대원회는 충남대 교수들로 구성된 불교신행단체로 1984년 출범해 지역의 산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재상 지사장

광주 화엄사빛고을포교원, 개원 3주년 법회

11월 23일, 경내 대웅전서
광산구 포교도량 거듭 발원



광주 광산지역을 대표하는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이 개원 3주년을 맞이해 기념법회를 열었다.

화엄사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 스님)은 11월 23일 경내 2층 대웅전에서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지역 거점 포교도량이자 대표사찰로 거듭나길 발원했다.〈사진〉

법회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부주지 우석 스님, 여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등 스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해청 스님을 비롯해 광주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전병호 신도회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화엄사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스님은 법회 참석자들에 감사를 전하고 "빛고을포교원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기도하고 부처님을 만나는 곳으로, 수행을 원하면 수행처가 되고 기도를 원하면 기도처가 될 수 있는 좋은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격려사에서 "전남지역 교구본사 중 화엄사만이 광주에 말사가 없어 원력을 모아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을 개원했다"며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도량이 돼 향후 30년, 300년 이어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화엄사 부주지 우석 스님은 축사에서 "3년간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을 위해 노력한 연성 스님과 많은 인연에 감사하다"며 "좋은 인연들이 소중하게 발전해 부처님 가르침이 더욱 퍼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무등 스님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균택·민형배 국회의원, 박상철 호남대 총장 등도 축사를 전했다.

이날 화엄사빛고을포교원은 채송화 전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불련, 전북지구 연합템플스테이

11월 23~24일 전북 금산사서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 동참



전북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학생들이 템플스테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동아리 간 교류를 확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 '덕'(회장 윤서영), 원광대 '여연'(회장 문건우), 군산대 '불동이들'(회장 이원회)은 11월 23~24일 전북 금산사에서 연합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사진〉 템플스테이는 학업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불교동아리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 첫날은 전북대 지도법사 우경 스님과 원광대 지도법사 정안 스님의 지도로 진행됐다. 연꽃 컵등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예불 등 다채로운 불교 활동으로 학생들은 한층 가까워졌다.

이튿날 학생들은 새벽예불 후 108배 참회를 통해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스스로를 낮추는 법을 배웠다. 이어 새벽 명상과 금산사 암자 순례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경 스님은 "대불련 학생들이 학업으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불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서로 교류·소통하며 각 지회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비 학생(전북대 20학번)은 "이번 템플스테이로 다른 지회 학생들과 만나고 교류해서 좋았다"며 "서로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 지회 간 유대가 끈끈해져 불교 동아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원정사, 지역주민에 온정 나눠

11월 27일 경내 앞마당서
5000만원 상당 '자비나눔'
미스트롯 배아현도 동참해



광주 소원정사가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며 겨울철,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 스님)는 11월 27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21회 나눔 및 제15회 연꽃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소원정사는 3500만원 상당의 쌀(1만2260kg)과 15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광주 남구·동구·북구청, 장성군청, (사)자비신행회 등 지역주민에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미스트롯 가수 배아현 씨가 1000만원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보응사 보응 스님, 광덕사 주지 동진 스님, 강진 시방사 주지 성묵 스님을 비롯해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전진욱 국회의원,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배아현 팬클럽 회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함께했다.

도계 스님은 "21년 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자비나눔을 시작했다"며 "이번 행사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자비심을 가진 523명이 마음을 내어주신 덕분에 이뤄졌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는 이미 행복합니다"…혜민 스님 특강

세종전통문화체험관, 11월 21일
300여 명 동참…'힐링 강의' 인기



'힐링멘토' 혜민 스님이 마음을 치유하는 특강을 열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관장 현우 스님, 광제사 주지)은 11월 21일 관내 다목적실에서 '혜민 스님의 마음 치유 특강'을 열었다.〈사진〉 선착순으로 모집한 이날 강연은 300여 명을 넘어서며 조기 마감됐다.

혜민 스님은 대중들에게 행복해지는 '비밀'을 공유했다. 스님은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이미 행복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며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항상 뭔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마음이 멈출 때 우리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자유, 사랑, 풍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동반한 젊은 부부는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 신청했다"며 "오늘 스님 강연을 통해 '행복'을 알아가게 된 것 같아 무척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장 현우 스님은 "이번 특강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종전통체험관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의미 있는 특강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청계사, '천인들의 비파' 연주교육 회향

11월 16일, 수료식 · 음악회



청계사가 신중도 속 '비파'를 연주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회향했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 스님)는 11월 16일 한국 전통악기 '비파'를 배우는 '청계사 신중도 속 천인들의 합주' 프로그램을 회향하고 수료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번 비파 교육은 청계사의 역사성과 국가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가유산 문화재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생들은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신중도'를 주제로 한 곡으로 공연에 나섰다. 수료생들은 경내 설법전에서 '비파 천인들의 노래'를 연주, 고즈넉한 전통산사의 매력을 비파 선율에 담아냈다. 청계사 산하 장애인사회복지재단 녹향원 거주자들은 아름다운 비파 소리 속에서 휴식의 시간을 즐겼다.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지역주민 모두가 사찰 문화유산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학적, 문화사적, 역사학적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울산 영묘사 후불탱화 점안식 봉행

11월 27일, 대웅보전서



울산 영묘사가 대웅전에 봉안된 보살상의 점안식과 호마기도를 봉행했다.

울산 영묘사(주지 용수 스님)는 11월 2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불교전통의식에 따라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미륵보살상 등 다섯 보살상과 광명편조전 후불탱화 점안식을 거행했다.〈사진〉 점안식 이후에는 광명편조전에서 호마기도와 자현 스님 초청 설법회를 진행했다.

영묘사 주지 용수 스님은 "호마기도는 부처님 지혜의 불로 각자 마음속 탐진치 삼독을 태우는 기도"라며 "이를 통해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삶을 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호마기도는 액운을 방지하고 복을 증진하는 의식으로, 나쁜 재앙을 없애고 밝은 마음과 행복을 증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